

교법사 ‘인성교육 시대’ 선봉장

70돌 맞는 조계종 교법사단

광복 후 교법사 6명으로 시작
불교 교육 일념으로 발전 거듭
포교 자료집·교재 연구 추진
현재 29개 학교서 31명 활동

오는 9~10월 70주년 법회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박차
청소년 명상일기 발간 계획



2005년 열린 조계종 교법사단 60주년 법회 모습. 해방 이후 불교교육을 책임져 왔다.

교육 일선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교육·표교하는 교법사들의 모임인 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이학주, 이하 교법사단)이 올해로 창단 70주년을 맞았다. 이에 맞춰 교법사단은 70주년 기념법회와 청소년 포교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법사단의 효시는 1945년 해방 이후 각 불교 종립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법사 제도를 두고 학생들에게 교학수업을 실시한 때로 본다. 해방 전에도 불교종립학교가 있었지만 해방 이후 불교교본을 발행하고 본격적인 불교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2년 8월 10일 불교 교육연합회 전신인 불교종립학원연합회가 발족되고 1968년 2월 20일 불교종립학원연합회 주관 제1기 교법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제도화 됐다.

창단 당시에는 교법사 자격시험에 통과한 6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13개 법인 29개 학교서 31명 교법사 활동 중이다.

교법사단의 시작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최초 6명의 교법사 출범 당시 유일한 여자 교법사였던 박명순 법사(前 동대부여교 교장)는 교법사단 60주년 창간호 <선지식(善知識)>에서 “첫 해 교법사 위지는 부스럼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아침 직원회마다 교법사는 자리를 비워달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으며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환영받지 못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회상했다.

학교 자체적으로 활동하던 교법사들의 연합활동이 본격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9년 1월 제1회 불교종립학교 교법사 연수회에서 전국교법사단 전신인 전국교법사회(조대희장 김윤주)가 창립되면서 부터다. 이후 1991년 3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교법사 자격인

정서를 받고 전국교법사회 명칭을 전국교법사단으로 바꾸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학주 단장은 창단70주년을 맞아 “교법사라는 이름이 탄생한지 70년, 한 사람 인생을 비취 봐도 완속해지는 시간이다. 그에 걸맞은 역량과 비전을 갖춰야겠다는 무게감이 느껴진다”며 “교법사단은 앞으로 불교 교학을 더욱 연마해 청소년 포교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교법사단의 주요 활동은 불교종립학교서 종교(불교) 교과 지도 및 생활 지도이다. 그러나 70년 간 창단기념세미나를 비롯한 연구 저술 활동, 교학 연구논문 발표 등 교육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매년 불교종립학교 불교학살회(조대희장 김윤주)가 창립되면서 부터다. 이후 1991년 3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교법사 자격인

조하고 있다.

앞으로 교법사단은 청소년 포교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과연구회에 ‘서울초중등행복인성교육 연구회’를 지난 4월 등록했으며, 불교 사상을 핵심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백미나 전국교법사단 사무총장은 “최근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많은 인성교육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처님 행복방법론을 인성교육에 접목해 학생들에게 더불어 행복한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가 드러나면 교육청 인가를 받아 일반 학교 교사 및 교법사 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법사단은 70주년 기념에 맞춰 조계종포교원 지원 청소년 포교자료집 <행복일기>를 7월 1일 공식 발간한다. <행복일기>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명상일기다. 백 사무총장은 “교법사단은 자기주도 학습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수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불교명상이 종교를 넘어 건강과 힐링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수행일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6월 26~27일 예정되었던 교법사단 70주년 창설 기념법회는 메르스 연파로 연기돼 9~10월 경 진행할 계획이다.

박익문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의현 스님 ‘멸빈’ 사실상 해제

재심서 공판정지 3년 받아... 판결 21년만에 뒤집혀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 당시 멸빈됐던 조계종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이 재심호결원 판결을 통해 공판정지 3년 판결을 받았다. 승려 지위를 박탈한 멸빈 징계를 받은 지 21년만에 사실상 사면 받은 것이다.

조계종 재심호결원(원장 자광)은 6월 1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전 판결을 뒤집고 공판정지 3년을 결정했다.

호결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현 스

님은 지난 5월 21일 재심 청구를 제출했다. 이유는 1994년 조심호결원이 멸빈의 징계를 내렸으나 이를 통보받지 못해 재심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호결원은 외부로 펴고 종단 법률전문위원 등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고, 징계의결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조심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며, 재심을 다룰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를 개시한 재심호결원은 1시간여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 자리에서

는 의현 스님 본인이 직접 참여해 손수 적은 참회문을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현 스님은 종단 승려로서 마지막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재심호결원은 의현 스님이 1994년 당시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을 혼란케 한 점은 죄가 크나 과거에 대한 참회가 이뤄졌고, △20년 이상 환속하지 않고 스님으로 살아온 점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공판정지 3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의현 스님은 완전히 복권된다.

진제 스님 “일불제사 섭수토록”

재심 심리에 앞서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진제 스님은 6월 발표로 명시된 교시에서 “종단 개혁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종단사의 장엄한 광명의 빛이요, 거스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었다”면서 “정화 이후 1994, 98년에 징계를 받고 지금까지 속죄하지 아니하고 참회 정진하는 이들에게 출가사문으로 회향하도록 섭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 당시 제바달다도 대중 앞에서 참회하니 용서하고 화합 승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은(佛)을 베풀었다”며 “화합은 시대정신이요 사부대중에게 부여된 성스러운 소명과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조계종은 6월 12일 전국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에 공문을 발송하고 위로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시달렸다. 사진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 설치된 메르스 극복을 위한 현수막. 사진=노덕현 기자

메르스 극복, 불교계도 나섰다

조계종, 입장문 발표... 주요 사찰 위로 현수막

관음종 16일 참회기도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을 위해 불교계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12일 대법인 일감 스님(기회실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메르스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합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인내하고 있다”면서 “보조국사 지불스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 이겨내라’고 하셨듯, 재난은 언젠게든 올 수 있으나 함께하는 지혜와 의지로 거뜰히 이겨낼 수 있

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은 사회를 깨닫겠다는 마음으로 수행에 진력하고, 여기서 오는 맑은 기운으로 현재에 처한 사회적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12일 전국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에 △의뢰진 및 의뢰기관, 담당 공무원 격려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위로 △격려와 위로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설치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협력 의지는 6월 17일 총무원을 예방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총무원장 자

승 스님의 환담에서도 나타났다.

17일 예방에서 박 시장은 조계종과 불교계가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에 신경쓸 것을 사찰에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자승 스님은 “종단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음종(총무원장 홍파)도 메르스 극복을 위한 참회기도 정진에 들어갔다. 관음종은 6월 16일 ‘메르스 극복을 위한 특별 참회기도’를 입재하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조속한 극복을 기원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5일 종단 사찰에 공문을 보내 16일 초하루 법회에서는 메르스 극복을 위한 특별 참회기도를 병행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권리제한 연장 안한다

정상화추진위, 18일 회의서 결의

선학원 등 조계종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게 됐다. 현재는 7월 31일까지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는 6월 18일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7월 31일 만료를 앞둔 미등록 법인 권리 제한 유예 조치

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 202회 중앙총회 임시회에 미등록법인 권리제한 유예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요청을 할지를 두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요청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선학원과 대화를 위해 전국선원수좌회에 선원장 스님들과 선학원 이사진의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해보세요.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씌는 데는 무려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 도자기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차 마시기도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범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범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 날개 5,000원 ● 2개 SET 9,000원 ● 3SET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